

현대자연철학 특강

자아의 탄생과 미래

10강(종강)

양자역학에 기반한 버라드의 신유물론,
그리고 “나” 내면의 entanglement

최종덕(현대자연철학 전공, 독립학자)

philonatu.com

2023년 2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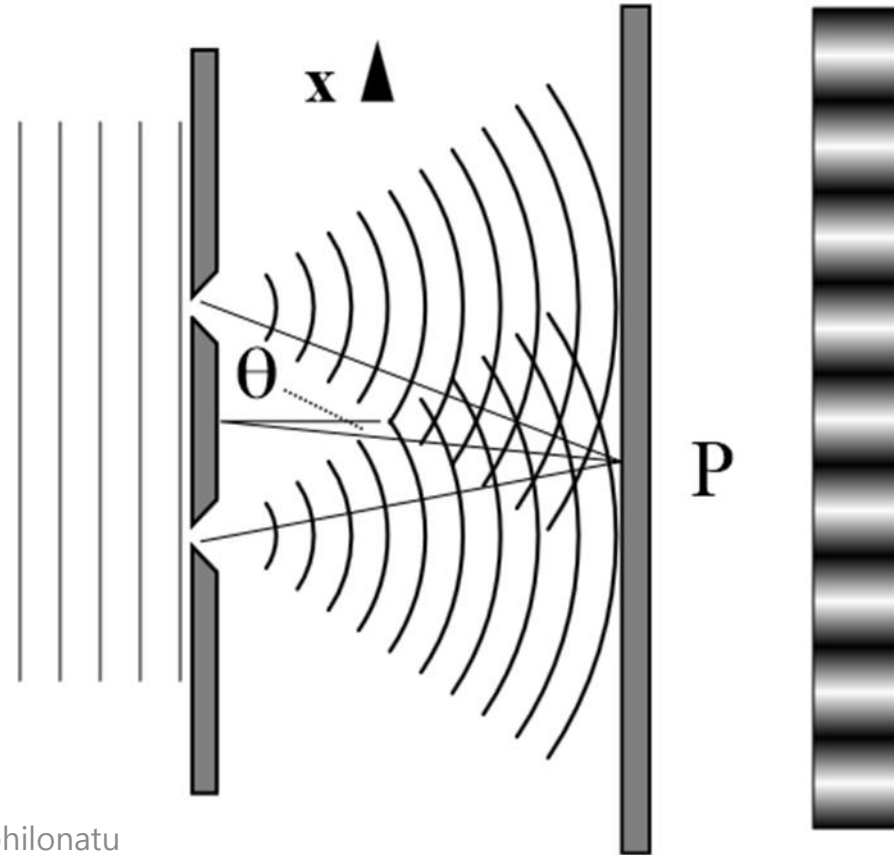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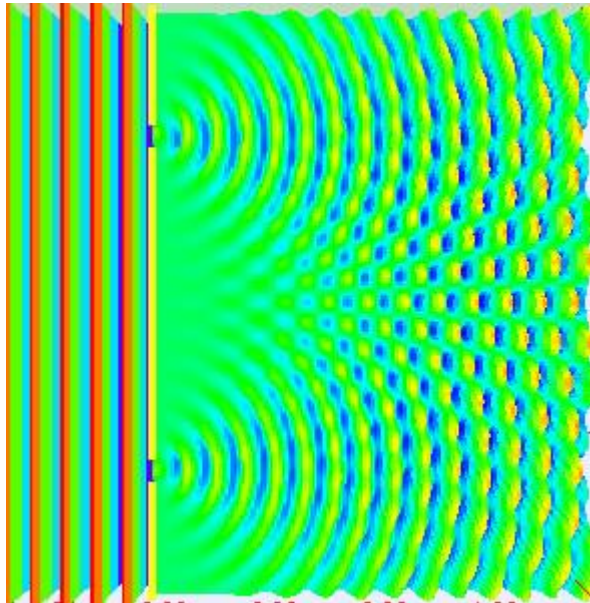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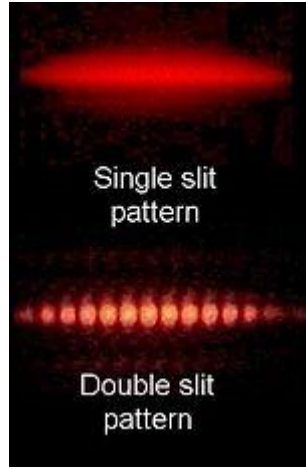
Karen Barad의 신유물론

-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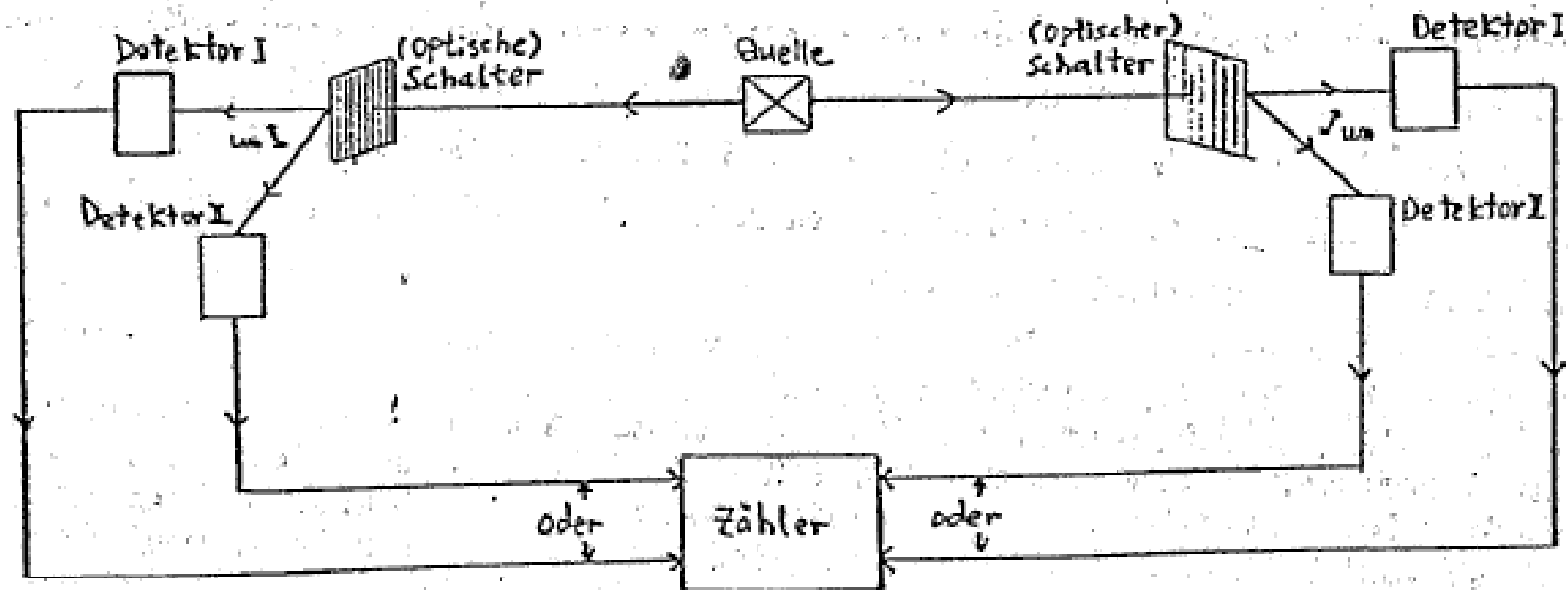
『우주와 중간에서 만나기: 양자물리학, 그리고 물질과 의미의 얽힘』

- Barad, Karen, "Agential realism: a relation ontology interpretation." Olival Freire Jr.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Quantum Interpre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들뢰즈가 스피노자를 해석하면서 '신유물론'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함.



sich das Photonenpaar im Flug befindet.



출처: Jongduck Choi(1993)

슈뢰딩거의 고양이(1935) Erwin Schrödinger (1887–1961)

Naturphilosophie und Quantenmechanik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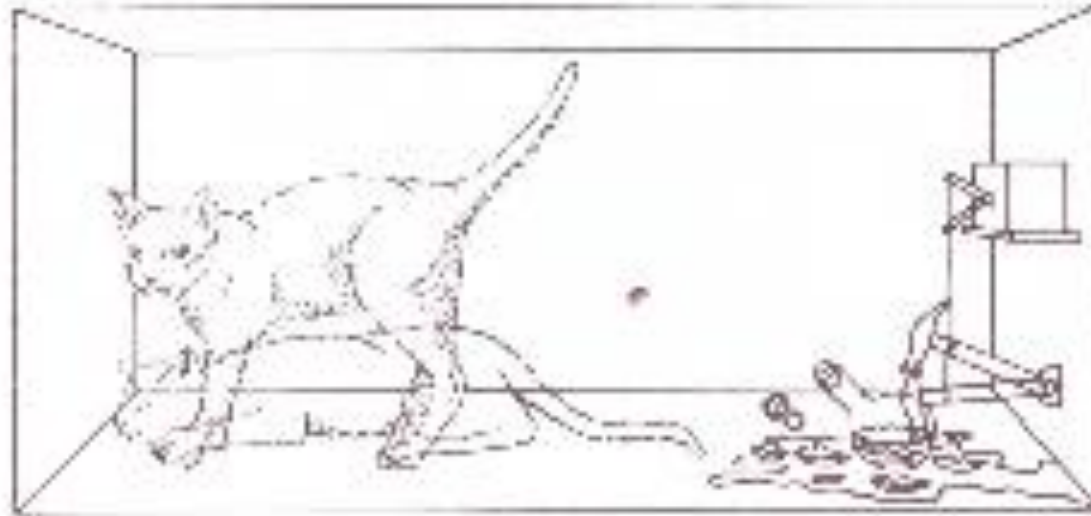


Abbildung 7

실재론

Realism

형이상학적인
실재론

비직접적
실재론

Scientific
실재론

예술분야

사실주의
현실주의

Realism

① Platon

② 전통 철학에서
만능하는
실재론

③

④ Scientific Object

과학담구의
객관적 대상이
실재한다는
실재론

○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과학주의 신념

○ Newton, Einstein ↔ Niels 보어

반실재론
신실재론

양자역학의
Kopenhagen
해석

버라드 유물론과 전통 유물론 차이

- 전통유물론은 의식과 물질을 구획하여 의식은 물질의 파생물이다.
특히 맑스 유물론의 기초는 생산양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 반면 버라드 유물론은 의식과 물질이 서로 얽혀 있어서 비분리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한다.

버라드의 현상

버라드의 내부작용자로서 현상은 행위적 절단을 통해서 경계가 드러난다.

물질과 의미는 분화되지 않은 현상 안에 하나로 얽혀있다. 이를 행위 실재론 agential Realism 이라고 한다.

(agential 은 행위로 번역, performative 는 수행으로 번역함)

신체와 외부와의 경계(신체경계)는 본질적이지 않으며 유동적이다. 즉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특정한 신체 수행의 반복이다.

세계 구성론의 다양한 이론들

1. 실재론적 이데아 - 플라톤
2. 사물 things
3. 사건 events 화이트헤드
4. 현상 phenomena - Barad
5. 원자 atoms - 데모크리토스
6. spirits, Myth
7. 관념적 이데아, 관념적 지각덩어리 sense data
8. logic -

버라드의 회절diffraction

베라드 회절의 방법론- 회절은 간섭현상이다.

물질도 회절한다.

대상을 그대로 반사하는 그런 반영이 아니라 차이를 주목한다.

반영에서 회절이 요청된다.

회절에서 차이들의 진행과정은 삶의 방식이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근본 구성요소이다. -사소한 차이를 존중한다.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회절적의 읽기가 중요하다.

버라드의 행위실재론 agential realism

- 버라드 행위실재론에서 말하는 존재의 기본단위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현상 phenomena이다.
- 여기서 현상이란 관계의 원자적 성격이며, 얽힘으로 되어 있다.
- 현상은 내부적으로 연결 intra-act되어 있다.
- 우주는 intra-action 이라는 내부작용으로 생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 Barad 2007, 68

행위 실재론 agential realism

구성주의와 다른 점

- 인식이 존재를 재현한다는 구성주의를 버라드는 비판한다.
- 인식이 존재를 재현representation(구성construction)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원래 인식과 결합된 상태에서 인식이 수행될 때 존재가 물질화될 뿐이다. 인식과 존재의 얽힘이다.
- 물질화되는 인식 수행은 객관적이다. 이를 행위 실재론agential realism이라고 한다.

베라드의 <사이보그 선언>

만들어지고 있는 신체 (해러웨이 입장) 신체는 의식에 의해 재현된다는 구성주의 입장이 스며있다.

베라드는 코펜하겐 해석을 도입하여 구성주의 대신 얽힘 사이의 내부 작용으로 신체를 해석한다. - EPR에 반론하는 닐즈 보어에서 에너지 보존 전자쌍인 $-e$ 와 $+e$ 는 하나의 몸체(현상)이다. 하나의 얽힘이다.

인식이 수행되면서 물질이 드러난다. 자아가 수행되면서 신체가 실현된다. enacted 나타난다.

- 1. diffractive methodology (회절)- 실험절차를 통해서 드러나는 수행성 중시 - 차이를 드러낸다.
- 2. reflexive methodology (반영) - 기존 객관주의 측정방식 -재현주의, 모방에 근거한 객관주의
 - **** "관찰
 - 자는 자연의 일부이다."

- Barad 2007, 67

젠더와 억압

- “젠더가 성을 정의하는” 사회구성주의
- “성이 젠더를 정의하는” 생물학적 본질주의

이런 두 상반적 입장을 너머서는 버라드의 억압의 젠더 의식

인간종의

영원한

굴레

“이중성 인간”



@philonatu 최종덕